

조용석 원장 지·상·강·좌

Type I-a를 제외한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기가 어렵거나 위험이 따르는 Type I-b, Type II-a, Type II-b는 모두 지연 임플란트 식립의 적응증이다. 3개월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서 이왕이면 4개월 이상 기다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6개월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다. 특히 치주 질환으로 인하여 골 파괴가 심한 Type II 발치와는 충분히 기다려 보는 것을 추천한다. 많은 하악 구치부 증례는 지연 식립이 최적의 임플란트 식립 시기이며 기다렸을 경우 간단한 방법으로 식립이 가능하다.

하악 구치부에서 지연 임플란트 식립 요점은 다음과 같다.

- a. 연조직 치유는 이루어졌고 골조직도 어느 정도 성숙한 상태이다.
- b. 발치 후 3개월 정도에 재평가하고 이왕이면 4개월 이상 충분히 기다린다.
- c. 대부분 Flap을 열지 않아도 된다.
- d. 꼭 부착 치은을 증가시켜주고 싶다면 apically positioning flap을 할 수 있다.
- e. 향후 Bone healing 높이를 예측하고 bone 아래에 임플란트가 위치하게 하라.
- f. 임플란트는 치은 높이에서 4.0-5.0mm 정도 하방에 위치되도록 깊게 심어라.

다음은 하악 제2대구치 지연 임플란트 식립 증례이다.(그림 11~그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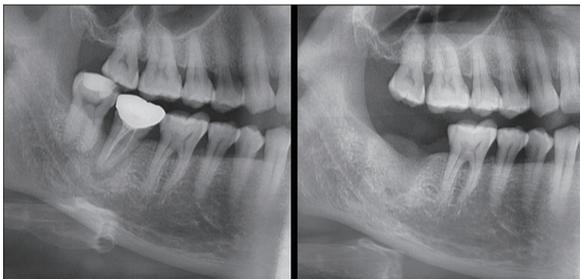


그림 11 : 49세 남자 환자로 3개월 전에 #47을 발치하였다. 파노라마상 골조직의 부분적 치유 소견을 보인다.



그림 12 : 약간의 수직적 수평적 조직의 흡수가 보이지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어 보여서 Flapless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였다.



그림 13 : 최종 드릴은 4.5x10.0mm taper drill을 사용하였고 드릴링 후 흡의 깊이는 14.0~15.0mm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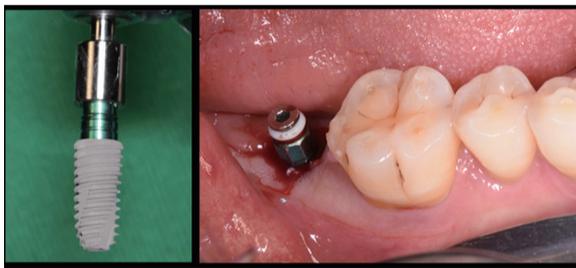


그림 14 : 임플란트는 Ø4.5x10.0mm를 식립하였다.



그림 15 :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력은 60Ncm, ISQ value 77/73으로 좋았다. 605 healing abutment를 체결했는데 식립 깊이는 협측 4.0mm 근심측 5.0mm였다.



그림 16 : 술 후 파노라마 사진상. 적절하게 임플란트가 식립된 소견이다.



그림 17 : 수술 3개월 3주 차에 크라운을 장착해 주었다.



그림 18 : 수술 3년 후의 임상 및 방사선 사진상. 건강하고 안정적인 소견을 보여주고 있다.



조용석 원장

- 서울대학교치과대학졸업
- 서울대학교치과병원구강악안면외과수련
- 충북대학교부속병원구강악안면외과과장
- 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
- 현) 22세기서울치과병원원장
- Osstem AIC course director
- www.dentalbean.com일타강사